

공항 · 전철역 구내에서의 흡연실 사례와 대책

전문연구위원 박환서

1. 머리말

- 담배피우는 것에 대하여 여러 계층의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분분하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비 흡연자들의 불평과 또 흡연자의 불만의 소리도 귀 기울려, 서로 공존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기를 희망한다. 일본의 담배제조회사가 공항과 전철과 같은 공공시설에 흡연의 피해도 줄이고 흡연자에게도 즐겁게 피울 수 있는 흡연실을 위하여 연구 개발한 사례가 있어 소개한다.
- 일본의 흡연율은 남자33%, 여자14%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며 남자의 흡연율은 최근 5년간 2~3%감소했으나, 여자의 경우는 오히려 1~2%가 증가하였다. 또 일본에서는 건강증진 법 시행 후 100명이상 5000 이하 회사들의 80%는 무슨 방법으로든 흡연구역을 준비하고 있으며 100명 이하의 회사들도 70%는 준비하고 있는 실정이다.
- 비 흡연자의 흡연실에 대한 만족도는 만족할 만한 흡연실로 인프라가 되어 있을수록 높아진다. 즉 파티션만으로 된 것 보다는 밀폐 룸으로, 또 여기에 배기 팬이 취부대고 또 대기오염 제거설비까지 갖춰진 것 일수록 만족하고, 흡연실에 동의한다. 밀폐 룸만으로는 불만족하며 여전히 혐오한다. 비 흡연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것은 담배연기와 냄새며(80%) 담배꽂초와 니코틴 그리고 담뱃재 등으로 흡연자들의 무책임을 지적한다.
- 이러한 현상인식을 통하여 공공장소에서 비 흡연자들이 동의하고 만족할 수 있는 알맞은 흡연실과 여기에 담배냄새와 연기를 제거할 수 있는 환경설비를 갖추어야 하고, 흡연자들도 비 흡연자에게 직, 간접으로 피해를 주지 않도록 자제해야 하며, 꽂초, 담뱃재 관리 등에 주의해야한다. 담배제조회사나 공항 등 공공시설에서는 고객인 흡연자

들이 즐겁게 흡연할 수 있도록 환경구축을 이루어 나가야 한다.

2. 기술의 내용

□ 공공장소에서의 흡연환경

○ 공항

건강증진법이 시행되기 이전부터 비행기내에서의 완전금연 때문에, 흡연자들은 탑승전과 착륙 후에 흡연 장소를 아주 많이 이용하게 되어 혼잡하고 환경이 불결해지므로, 공항에서는 흡연실들을 점점 소형 다량 화하여 한두 사람씩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다. 대규모 공항 일수록 빠르게 추진하고 있으며, 또 탑승대기실 (Holding Room)내의 흡연실은 크고 작은 공항 모두가 계속 유지시키고 있다.

○ 전철

건강증진 법 이후 일본의 민영철도에서는 역구내와 승강장에 있던 재떨이를 철거하여 완전 금연시켰으나, 이 결과로 역 출입구에서는 담배꽂초가 많이 버려져 도로가 불결해지는 등 주변 환경문제가 발생되어 보다 좋은 흡연실을 준비하고 있다.

□ 공공장소의 구체적인 흡연 장소 사례

일본의 담배산업(주)가 개발하여 공항과 전철에 설치한 흡연실 사례를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이전에는 두 곳 모두 오픈 스페이스로 된 흡연 장소를 유리로 천정까지 4면벽을 완전히 밀폐하고 또 배기시설을 설치하여 흡연실내의 연기가 금연구역으로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흡연실 내를 부압(-)이 되도록 하였다. 또 흡연실의 출입구는 이용자의 동작에 방해가 되지 않는 개방형으로 출입에 관계없이 흡연실내로 기류가 흐르는 효과로 연기나 냄새가 흡연실 밖으로는 절대 누설이 되지 않는 구조로 하였다. 흡연실내의 공기는 배기장치에 의하여 옥외로 배기되고 분진은 환경설비에서 제거 되도록 하였다.

○ Shinchitose(新千歳)공항 흡연실

탑승대기실 내에 공동으로 개발한 '유인기류 분연 시스템'의 분연기

(환경설비)를 설치하였다. 이 시스템은 환경설비 출구에 취부 된 특수 플랩에 의하여 흐르는 기류에 담배 연기가 유인되어 연기 확산을 막으므로 빠르게 흡연실 내 공기를 깨끗하게 한다. 따라서 흡연자들은 탑승을 기다리는 사이 느긋하게 편히 쉴 수 있는 소프트 테이블을 배치하도록 설계하였다.

○ 서 일본철도 후쿠오카 역의 흡연실

오픈 스페이스의 흡연 장소에서 담배냄새가 역 구내로 들어와 개선을 검토할 때 역주변의 도로가 금연구역이 되어, 역 개찰구 옆에 있던 기존의 흡연 장소에 많은 사람이 모여들 것이 예상되어 기존의 오픈 스페이스의 흡연 장소를 유리로 천정까지 막아 밀폐된 흡연실로 만들었다. 흡연실을 설치한 후 이용자 및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들에게 앙케이트 조사를 한 결과 비 흡연자의 93%가 긍정적인 평가를 하였다. 냄새와 연기를 처리할 수 있는 환경설비를 설치한다면 충분한 이해를 얻을 수 있어 공존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 보다 좋은 환경 대책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실은 점점 감소되는 추세이므로, 남아있는 흡연실에 많은 흡연자들이 집중될 것이 예상되며, 이 결과 흡연실은 당연히 처음 흡연 장소로 만들 때 보다 상상외로 환경이 나쁘게 될 것이다. 앞으로 흡연 장소 설계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아래와 같이 생각할 수 있다.

○ 흡연 장소의 배치

먼저 흡연 장소를 이용 할 흡연자 수를 예상하여, 설비나 환경을 설계해야 한다. 흡연 장소를 복수로 설치 분산시켜, 흡연자들이 한 장소로 집중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환경이 악화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흡연 장소의 위치는 비 흡연자에게 담배연기·냄새의 영향이 미치지 않으며, 흡연자들의 동선으로부터도 떨어진 장소가 좋다. 출입구도 동선으로부터 멀리하는 것이 좋다. 흡연실 내부 배치는 출입구에 흡연자들이 체류하지 않도록 한다. 즉 출입구 부근에는 재떨이를 설치해서는 안 된다. 흡연실의 한가한 위치 즉 구석진 위치에 대형 재떨이를 설치하여 이용자들을 구석진 자리로 유도하는 동선 연구가 필요하다.

○ 흡연실 내부 환경유지

- 흡연실 오픈 전에 청소담당부서와 청소시간·방법 및 청소회수를 조정하여 오픈 즉시 실행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 공항이나 역 등에서 외부공기를 흡입하거나 구내의 공기를 외부로 배기 시킬 때 필터를 사용하는 경우, 먼지가 많은 배기구 필터들은 빼내어 청소하기 쉽게, 필터 크기와 탈착을 쉽게 하고 필터도 세척 재사용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으로 이에 대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 공공장소에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므로 흡연실 내에는 무의식적으로 쓰레기가 많이 버려지므로, 재떨이나 집진·탈취기 등의 윗면은 경사지게 하여 쓰레기가 쌓이지 않고 미끄러져 보관될 수 있는 구조가 되도록 하는 것이 요망된다. 이를 위한 연구 개발이 필요하다.
- 흡연자가 오래 머물지 않도록 의자는 가급적 배치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부득이 한 경우는 소프트 벤치를 설치하도록 한다.

- 흡연자와 비 흡연자 다같이 이용하는 공공의 장소에는 분연구역 (Smoking/ none smoking Area)설비를 정당한 위치에 여러 개소를 설치하여 공존하는 공공시설물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다 좋은 흡연 환경 구축을 위해서는 냄새·연기를 잘 처리할 수 있는 효율 높은 환경설비와 높은 환기시스템을 개발해야 하며, 적당한 분연구역 지식의 축적과 컨설팅으로 흡연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며, 교육하여, 비 흡연자들이 담배냄새와 반응하여 발생하는 이차 냄새나 심리적인 혐오감 때문에 흡연을 더 싫어하고 못마땅하게 취급하는 현상을 흡연자들이 깨닫고 대처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공항이나 기차역, 터미널 및 전철역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에서는 마땅히 좋은 흡연실을 준비하여 비 흡연자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고, 흡연자들도 부담 없이 흡연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성능이 우수한 탈취, 집진 설비들이 많이 개발되었으므로 지역·수요 특성에 맞는 흡연실을 많이 설치할 필요가 있다.

- 무엇보다도 담배가 백해무익함을 홍보하여 흡연율을 줄이는 것이 국민 건강과 국민경제(수입담배, 흡연실 등)에 더 유익할 것이다. 흡연자와 비 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지름길은 흡연자들에게서 찾아야 할 것

같다. 담배를 피움으로 인하여 개인은 즐겁고 기쁘겠으나 이로 인하여 자기가족과 이웃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인식을 하게 되면 공존의 길은 해결 되는 것이다. 흡연자들보다는 대부분의 경우 비 흡연자들이 재떨이나 궤초를 줍게 된다. 담배궤초 하나라도 함부로 버리지 않는다면 그만큼 흡연자들은 자유스럽게 비 흡연자들과 공존 할 수 있을 것이며, 흡연 장소도 골라서 즐길 수 있을 것이다.

◁ 전문가 제언 ▷

- 오래전부터 매스컴이나 담배 갑에까지 담배가 인체, 특히 폐암 등에 치명적인 해를 끼친다는 것을 홍보하고 있음에도 흡연율이 크게 줄어 들지 않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 남자들의 흡연율은 93년 75%보다 99년에는 65%로 많이 감소되었어도 세계에서 가장 높은 흡연율을 나타내고 있다. 우려되는 것은 고등학생의 흡연율이 증가되고 있으며 특히 여고생들의 흡연율이 95년 5%에서 97년에는 10%로 증가되고 있다는 것이다. 서구 선진국의 흡연율은 30-35%로 점점 감소되어 가고 있다.
- 담배인삼공사와 같은 담배제조 회사는 흡연자들이 귀중한 고객이었으나, 비 흡연자들에게는 백해무익하기만하다. 비 흡연자들도 간접흡연효과로 폐질환 등 많은 질환이 발생된다고 조사 발표되고 있다. 특히 가정에서 가장 한 사람의 흡연으로 식구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고 있다. 많은 건물들이 금연 건물로 지정하거나 흡연구역을 지정하고 있다. 대부분 회사의 흡연실은 그냥 칸만 막거나 환기팬으로 배기시키는 정도로서 흡연자의 환경을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상태들이다.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의 흡연실은 대체로 양호한 평가를 받고 있는 듯하다. 공공시설물에는 흡연자들의 건강을 고려하여 환경설비를 갖춘 흡연실을 설치하되 사전에 충분히 검토 평가된(사용예정자 수, 이용자들의 동선, 연기와 냄새의 농도, 강도 및 배기량, 그리고 내장물의 모양과 배치 등) 안락한 휴식처가 되어야하며 사후관리 또한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 흡연자와 비 흡연자가 공존할 수 있는 것은 흡연자의 몫이라 생각된다. 흡연자들은 비 흡연자들 때문에 피해나 손해 보는 일은 전혀 없다. 오히려 비 흡연자들이 흡연자들 때문에 피해를 보기 때문이다. 흡연자 자신이 「나는 움직이는 점 오염원이다」는 인식으로 자기가 발생시키는 담배꽁초라도 스스로 처리해야 흡연의 권리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금연자가 많아지면 돈을 많이 들어가면서 흡연실을 지을 필요도 없을 것이며 우리들 집과 회사의 환경도 좋아질 것이다. 선진국일수록 흡연율이 낮아지고 있다. 청소년들의 호기심도 잠깐 일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도 흡연율은 감소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공항이나 전철 등 다중이용 공공시설에는 외국인들을 고려해서라도 환경설비를 갖춘 흡연실을 설치해야할 것이다.